



제57차 IAEA 정기총회 참가를 통한 원자력 외교 활동 강화

곽재규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원자력협력과 사무관



서울대 영어교육과 졸업
벨기에 국제경영대학원(MBA, MSc)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 소기업과,
지식서비스기업과)
과학기술부(평가정책과, 연구실안전팀)
과학기술부 우주기술협력과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우주협력과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원자력협력과

제 57차 IAEA 정기총회가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제57차 정기총회는 1957년 제1차 총회가 개최된 이래 57번째 행사로써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메시지 대독,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의 각 원자력 분야에 대한 IAEA 역할 언급으로 시작되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메시지를 통해 평화적 핵이용을 위해 원자력 안전 및 방호, 원자력 기반 구축에 IAEA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향후 핵군축 관련 핵검증 및 핵투명성, 불가역성 확보에 있어 IAEA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대표단은 미래 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의학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두산중공업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교체 수석대표로 참석한 조현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중심으로 한 비엔나 현지 대표부 직원들도 IAEA 57주년 행사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였다.

대표단은 총회 기간 중 열리는 과학포럼, 아태지역협력협정(RCA)회의 등 다양한 병행 회의에 참석해 원자력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수석대표의 양자 회담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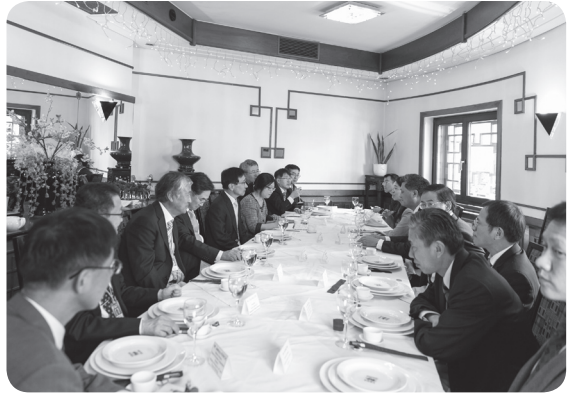
금번 IAEA 총회의 수석대표인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총회 기간 동안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원자력 선진국은 물론 IAEA, OECD/NEA 등 주요 국제기구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가졌으며 총 6차례의 양자 회담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위한 외교 활동을 수행하였다.

한국-프랑스 양자 회담

9월 16일(월), 프랑스 수석대표인 Bernard Bigot 원자력청장과의 양



한국-프랑스 양자 회담



한국-중국 오찬 회담

자 면담에서 프랑스 측은 원자력손해배상보충협약 (CSC: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에 대한 한국 측의 가입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상목 차관은 원자력 사고 시 적절한 피해 보상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하고 CSC가입 여부는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금번 양자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NEA 주관으로 금년부터 시작할 예정인 ‘호로비츠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또한 양국은 연구로 핵연료의 저농축 전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라늄-몰리브덴 핵연료 성능 검증 시험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대해 상호 협력 의사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한국이 OECD/NEA 사무총장 등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중국 오찬 회담

프랑스에 이어, 중국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수석대표 오찬 면담으로, 중국 수석대표 Ma Xingrui 중국원자능기구 주임과의 오찬 회담이 개최되었다.

Ma Xingrui 중국원자능기구 주임은 한국의 선진 기술 보유 분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고속로 개발, 원자

력 시설 제염 해체 등의 분야에서 Best Practice의 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중국은 원자력 사고가 범국가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대해 중국은 경각심을 가지고 원자력 사고 비상 계획을 개정하여 국제 공조 강화 항목을 추가했음을 언급하였다.

이상목 차관은 먼저 중국원자능과학연구원(CIAE)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간에 핵연료 조사 시험 등에 관한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바, 고속로 관련 협력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최근 후쿠시마 사고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로 인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2013년 11월 예정인 제11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원자력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사우디아라비아 양자 회담

같은 날 오후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의 Waleed H. Abulfaraj 부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 면담이 개최되었다.

먼저 Abulfaraj 부원장 측은 2011년 한·사우디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이후 한-사우디 라운드테이블 회의



한국-사우디아라비아 양자 회담



한국-OECD/NEA 양자 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의 원자력 활동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그 동안 원자력산업 및 연구 개발 분야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국 간 원자력 기자재 로드쇼가 개최되어 교육 훈련, 설계, 엔지니어링, 해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사우디 동부 및 서부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인 바 이에 사우디측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목 차관은 먼저 금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원자력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합의된 사우디 국립원자력연구소(NNL)설립, 20MW 연구로 개념 설계, 중소형원자로 공동 연구 및 초고온가스로 개발 등에 대해 조속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사우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사우디 국립 의료 기관인 KFMC(King Fahad Medical City)와 한국원자력의학원 간 방사선 비상 진료 시스템 기술 이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우디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국-OECD/NEA 양자 회담

9월 16일 마지막 양자 면담으로 OECD/NEA Luis E.

Echavarri 사무총장 등 OECD/NEA 고위 대표단과의 양자 면담이 있었다.

먼저 OECD/NEA 사무총장은 한국이 '93년 NEA 회원 가입 이후 회원국 간의 R&D 연구 및 정보 교류 등 NEA 활동에 크게 기여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향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중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와 방식에 대해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우 사고 당사자인 일본의 최근접국으로 더욱 이러한 대중 이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과, 정부 당국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노력을 기울여 대중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상목 차관은 먼저 에차바리 사무총장이 지난 16년간 재임하면서 한국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변함없는 협력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NEA 사무총장의 재임 기간 중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한국 전문가가 차기 사무총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국-IAEA 사무총장 양자 회담

9월 17일 오전에는 유키야 아마노 IAEA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이 개최되었다. 먼저 아마노 사무총장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 이니셔티브(PUI: Peaceful Uses



한-IAEA 사무총장 양자 회담



한국-미국 양자 회담

Initiative) 참여에 대한 감사와 함께, 후쿠시마 사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IAEA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였다.

또한 IAEA가 보유한 식물변이, 동물보건 등 원자력 이용 실험을 위한 Siebersdorf 시설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특별 기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NPT 탈퇴, 핵실험 강행,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국제 사회에 핵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IAEA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목 차관은 아마노 사무총장의 연임을 축하하면서 금년 개최된 '제3차 원자력 에너지 각료회의' 및 '2013년 핵안보 국제회의' 등을 통한 IAEA의 훌륭한 리더십 수행을 평가하며, 한국은 원자력을 신주로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교육 훈련 인프라 개발 활동 지원, 암 퇴치 사업(PACT: Program of Action for Cancer Therapy) 등 IAEA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미국 양자 회담

마지막으로 17일 오후에는 Peter Lyons 에너지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미국과의 양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먼저 Lyons 차관보는 고농축 연구로 핵연료를 저농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한국의 리더십 발휘에 감사하며, CSC와 관련하여 우리 측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

하고 '14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동 협약이 발효되면 한국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측은 우리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연구로 핵연료 공급과 CSC가 함께 의제로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미국 측은 I-NERI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측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미국이 10월 말 방한하여 과제를 선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운전 역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IAEA가 국제 규범 내에서 안전한 운영을 위해 요르단에 대한 교육 훈련에 있어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목 차관은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가 국제 규범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원자력기술이전 정부협정(NTT) 발효에 따른 이전 기술 목록에 대한 논의가 지연됨을 언급하며 미국 측의 조속한 통보를 요청했다. 또한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수송, 처분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상호 인식을 같이하였다.

마지막으로 IFNEC 집행위원회에 고위급 책임자를 파견기로 하였으며, 원자력손해배상보충협약의 우리 측 참여 문제에 대해 소관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하여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